

전북 SW 미래채움 사업 성료

남원시, 도 교육청-지역연계 SW중심대학 사업단 협력 추진 2track 지역인재 및 종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예정 등

남원시가 SW교육 거점센터 및 체험교육장 구축·운영, SW 교육환경 조성 과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한 전북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 1년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년차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4월 27일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 (주)디랩과 업무 협약을 맺어 전북SW 미래채움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SW미래채움센터 구축을 통해 거점도시 구축 및 SW인프라 확산 △2track(지역인재, 종합인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SW 인재 양성 프로그램 추진 △전북 지역민이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행사 추진 △전라북도 교육청 및 SW중심대학 사업단과 협력하여 지역연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SW미래채움센터는 올 6월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며, 지역의 초·중·고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드

론, 인공지능(AI), 로봇 등 체험공간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SW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2track의 지역인재 및 종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SW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인재 양성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리더스 클럽 운영(20명), 청년 SW개발자 양성 과정(40명)을 진행할 예정이며, 종합인재 양성프로그램으로는 SW 전문강사 양성(90명), 초·중등 SW교육 프로그램(5,000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SW미래채움 창작페스티벌은 물론, 올해부터는 다 지역 미래채움센터와 함께 드론코딩 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SW 교육을 진행한 학생들의 성과를 선보이기 위한 SW?AI Challenge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분야의 관심을 유도하고 진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토크콘서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연계를 통한 사업도 적극 진행할 예정으로 전라북도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초·중등 영재 교육을 지원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SW중심대학인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와 연계해 SW 해외봉사단, 국외협력 코딩대회도 유치할 계획이며, 코딩 동아리 학생들을 위한 멘토제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SW미래채움 토크콘서트 (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시, 올해 1월 1250여명 전지훈련팀 유치

12일까지 유소년축구 전지훈련

남원시가 전지훈련 최적으로 거듭나며 1월 들어 축구, 테니스 등에서 1,250여명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선수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난 5일부터 1차로 시작된 유소년 축구 전지훈련은 오는 12일까지 8일간 스포트브릿지와 함께 진행되며, 바로 이어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2·3차 훈련이 진행된다. 또한, 초등 테니스 동계 전지훈련도 8일부터 시작해 13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남원시 축구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유소년축구 동계 전지훈련은 전국 각지에서 총 35개팀 954명의 선수단이 방문해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축구구장, 문화체육센터 1·2구장, 남원중학교 운동장,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축구장에서 진행되며, 초등 테니스 동계



남원시에 방문한 유소년축구 동계 전지훈련팀. (사진=남원시청 제공)

전지훈련은 총 20개팀 300여명이 참여해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진행된다.

이번 유소년축구의 초동 테니스 전지훈련은 자녀들의 고된 훈련을 응원하는 많은 학부모들의 동계 훈련의 최

적지로 남원 방문으로 이어져 관내 마트, 카페, 음식점 등의 매출 상승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치즈, 유제품 할인 진행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16일까지 10% 할인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맞춘 임실군의 대표브랜드인 '임실N치즈' 유제품 할인행사를 시행한다.

전북도가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하고, 1월 18일은 전북에 있어 '새로운 시대, 특별한 전북'의 희망 신호탄을 쏘 올리는 역사적인 날이다.

출범을 기념하는 할인행사는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7일 동안 임실N치즈클러스터(<https://smartstore.naver.com/imsilchese>)와 임실치즈농협(<https://www.ischese.c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임실N치즈 유제품 10% 할인을 진행한다.

임실N치즈는 임실치즈농협을 비롯한 12개소의 유기농 공장에서 신선한 원유를 활용해 살균 과정을 거쳐 가장 신선한 치즈와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한민국 1%의 친환경 고품질 치즈로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

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임실N치즈는 작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치즈를 테마로한 임실N치즈축제는 8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치즈 수도로써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지난 9일 갑진년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와 관련하여 저지중 도입을 통한 임실치즈산업 고도화와 반려 산업 육성, 목적호 권역 종합관광지 조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 해외 우수인력 유입 및 지역 정착 등 분야별 특례에 대응한 특화 전략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생계급여 기준 완화

순창군은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3,000원에서 71만3,000원으로 14.4% 증가했고 4인 가구 기준 급여액 역시 162만원에서 183만3,000원으로 13.16% 증가했다.

재산 기준 역시도 완화되어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생계·의료급여에서는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다인가구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 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아울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금연클리닉 연중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올해에도 금연을 다짐한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해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연클리닉에서는 등록카드 작성 후 1:1 맞춤상담 통해 △금연 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제공, △금연 행동강화물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6개월 금연유지 시 금연성공 기념품도 지급한다.

지속적인 금연 유지를 돕기 위해 전화, 문자 또는 SNS를 통해 대상자들의 금연 관련 궁금증 및 상담을 진행하고 금연 유지를 격려하며 금연 성공을 돕고,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기관·단체·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금연상담실(635-903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추진

남원시는 2024년 상반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해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예방 및 마을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5억7,47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05동의 슬레이트 건축물과 91개소의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한 데 이어 올해도 15억2,424만원을 투입하여 총 399동의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우선지원가구 뿐만 아니라 일반가구도 신청이 가능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최대 주택 700만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 지붕철거는 200㎡ 이하의 전액 지원,

지붕개량은 300만원이며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홀몸노인·장애인 포함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이하인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은 전액 지원,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나 확정된 2024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0일부터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건물용도·건물면적 등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후 포기할 경우, 다음 사업 대상자 선정에 불리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발효테마파크, 새로운 관광명소 중심지 도약

대규모 복합놀이공간인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 위치한 순창발효테마파크가 지난 한 해 동안 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순창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실내 클라이밍, 스크린 사격 등 유아부터 어른까지 전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관의 경우 주말이면 모든 회차가 매진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순창발효테마파크는 한국의 대표 발효식품인 고추장, 된장 등 장류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고추장민속마을 옆에 조성된 복합놀이공간으로서, 2021

년 4월 처음 휴메관 개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개관의 다양한 테마존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오픈된 공간으로는 휴메관(푸드사이언스관), 광이관(미생물뮤지엄), 효모관(효모사피어관), 고고관 2층(발효테라피센터), 풍이관(1층 쉼피어 스포츠파크, 2층 웅기증기 놀이도서관(과학관), 다년생 식물원, 매곡관(추억의식물거리), 음식 스토리마켓 1동, 2동이 있으며, 고고관 1층과 빨간나라열정센터는 곧 개관될 예정이다. 발효테마파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돌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빗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적이 많은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